

뭌바톤에서 사용된 자메이카 음악에 관한 연구

박범근¹, 조태선^{2*}

¹라엘실용음악학원 강사, ²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A Study on Jamaican music Used in Moombaton

Beom-geun-Park¹, Tae-seon Cho^{2*}

¹Lecturer, Lael Music Academy, ²Professor,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뭌바톤 장르의 음악을 분석하여 그 속에서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을 찾아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루이스 폰시(Luis Fonsi)의 <데스파시토>와 BTS의 <피땀눈물>을 리듬적, 선율적, 악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을 찾아보았다. 연구 결과, 리듬적인 특징으로는 자메이카 음악에서 파생된 템보우 리듬과 레게 리듬의 유형을 보였으며, 선율적으로는 자메이카 특유의 선율 표현 방법인 토스팅의 사용이 돋보였다. 또한, 악기적인 특징으로는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타악기와 남미의 선율악기, 그리고 드럼머신 Tr-808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유행하는 장르인 EDM장르 속에서 자메이카 음악의 요소를 찾는 것을 통해 또 다른 퓨전장르를 만들어 내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뭌바톤, 자메이카 음악, EDM, 퓨전음악, 레게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usic of the Moombaton genre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Jamaican music in it. I analyzed Lewis Poncy's <Despacito> and BTS's <Blood Sweat & Tears> rhythmically, melodically and instrumentally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Jamaican music. As a result, the rhythm features a Dembow rhythm and reggae rhythm derived from traditional Jamaican music. and As a feature of the melody, toasting, a unique Jamaican expression method, was used. Instrumental features include Latin American percussion, South American melodic instruments, and the use of tr-808. This study is meaningful in creating another fusion genre by finding the elements of Jamaican music in the current popular genre of EDM.

Key Words : Moombaton, Jamaican music, EDM, Fusion music, Reggaeton

1. 서론

현재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EDM은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이다. 기존의 전자음악은 신디사이저나 전자드럼을 사용하여 단순한 패턴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음악이 전 세계 다양한 음악과 크로스 오버되면서 수많은 세부 장르들을 만들게 된다. 2010년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의 등장과 함께 전자음악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 전략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음악을 EDM으로 부르게 되었다[1].

이러한 흐름에 따라 DJ들은 점차 매번 똑같은 형태의 양산형 음악만을 만들게 되는데 리스너들은 기존의 시끄러운 EDM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EDM장르를 찾게 된다. 이때 등장한 음악이 레게톤과 일렉트로 하우스가 크로스 오버하여 만들어진 뭌바톤이다. 뭌바톤에서는 자메이카의 댄스홀에서 파생된 템보우 리듬이나, 레게 리듬이 사

*This thesis is a summary of the master's thesis at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Tae-Seon, Cho(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April 15,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May 14, 2021

Published June 28, 2021

용되었고 자메이카의 토스팅 창법을 이용한 보컬 표현방법이 사용되었다. 몸바톤 장르의 음악은 2015년 디제이스네이크(DJ Snake)가 발매한 <Lean on>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EDM의 메인장르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K-POP음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BTS의 <피땀눈물>, 청하의 <Why don't you know>, 아이즈원의 <환상동화>등 수많은 K-POP 히트곡이 몸바톤장르의 곡이다[2].

본 연구에서는 몸바톤과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을 먼저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루이스 폰시(Luis fonsi)의 <데스파시토>와 BTS의 <피땀눈물>을 리듬적요소, 선율적요소, 악기적요소로 분석하고 사용된 자메이카 음악요소들을 알아 볼 것이다.

2. 몸바톤의 개요

몸바톤(Moonbaton)장르는 레게톤과 일렉트로 하우스가 합쳐진 장르이다. 레게톤은 1990년대 말 푸에르토리코에서 시작되었는데, 푸에르토리코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당시 힙합과 또 다른 장르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리듬을 만들어 냈다. 미국의 흑인음악에 스페인어로 된 랩을 가미한 것이다. 이러한 레게톤은 90년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다. 레게톤의 특징으로는 스페인어로 된 랩과 템보우 리듬이 있다. 2009년 데이브 나다(Dave Nada)가 레게톤의 노래에 아프로잭의 <Moombah>를 합쳐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몸바톤의 시초이다[3].

메이저레이저(Major Lazer), 딜런프랜시스(Dillon Francis), 디제이스네이크(DJ Snake)등의 EDM 프로듀서들이 꾸준히 몸바톤 장르의 노래를 발표하여 인지도를 쌓았다. 그 중 2015년 발매된 메이저레이저와 디제이스네이크의 <Lean on>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몸바톤 장르를 단숨에 인기장르로 만들어 주었는데, 미국 빌보드 차트 HOT 100 4위, UK차트 2위를 기록하였으며 다양한 국가의 음원차트에서 1위를 하였다[4].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는 29억회를 넘어가고 있으며 이 노래를 시작으로 저스틴비버(Justin bieber)의 <Sorry>, 블랙핑크의 데뷔곡인 <불장난>등 그 인기를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3.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

3.1 리듬적 요소

자메이카의 대중음악은 1950년대 스카에서 부터 시작된다. 그 후 락 스테디, 레게, 덱, 댄스홀을 거쳐 레게톤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중 몸바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레게와 댄스홀의 리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게는 1960년대 말 시작되었는데 칼립소, 알앤비, 재즈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프비트에 중점을 두고 연주하는 특징이 있다. 기타 또는 피아노를 오프비트에서 스타카토로 연주한다. 이것을 스캅크(Skank)라고 부른다. 이러한 스캅크 리듬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레게의 리듬으로 여겨진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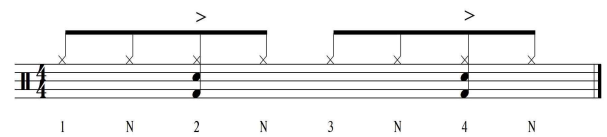


Fig. 1. Reggae rhythm score

Fig. 1은 레게의 리듬을 악보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2박과 4박에서 킥 드럼과 스네어 드럼을 연주하도록 한다. 하이햇은 N박에 해당하는 오프비트에서 악센트를 주며 연주한다.

댄스홀은 1970년도 무도장에서 그 이름이 유래 되었다. 차후 레게톤과 몸바톤의 리듬인 템보우 리듬에 영향을 주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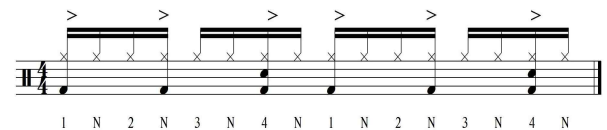


Fig. 2. Dance hall rhythm score

Fig. 2는 댄스홀의 리듬을 악보로 표기한 것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1,2N,4박에 하이햇의 악센트가 들어가며 동시에 킥 드럼을 연주한다. 마지막 박인 4박에 강세가 오는 것이 특징이며 템포가 매우 빨라지면서 16비트 기반의 연주를 한다.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인 3.3.2를 기본으로 한다[6].

레게톤은 최신 라틴음악의 형태이다. 댄스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템보우 리듬을 사용한다. 템보우 리듬은 샤마 랭크스의 노래 <Dem Bow>에서 시작 되었다.

Fig. 3은 템보우 리듬을 악보로 표기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1,3박에 킥 드럼과 하이햇의 악센트가 연주되고 2N,4박에서 스네어 드럼이 연주된다. 역시나

3.3.2의 연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댄스홀과의 차이점은 킥드럼이 3박자에 위치하였고 스네어가 2N박에서 연주된다. 또한, 댄스홀의 리듬과는 다르게 4박 째에 킥드럼을 치지 않는다. 킥 드럼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하우스의 리듬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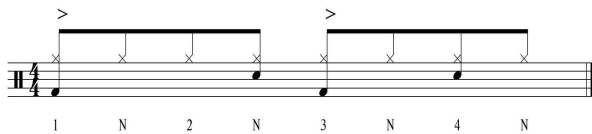


Fig. 3. Dembow rhythm score

3.2 선율적 요소

토스팅이라고 불리는 특유의 보컬 형식은 채팅이나 디자잉이라고도 불리며 여타 다른지역에서는 랩이라고 불린다. 토스팅은 디자이가 특정한 리듬과 비트에 맞추어서 모노톤의 소리로 말하거나 리듬감 있게 읊조리는 것을 말한다. 토스팅은 카리브해의 칼림소장르나 멘토와 같은 장르처럼 그리오 전통에서 유래 했는데 토스팅의 가사는 사전에 작성된 것 일수도 있고, 즉흥적인 것 일수도 있다. 노래와 토스팅을 결합시킨 형식을 싱자잉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힙합 씽에서의 싱잉 랩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토스팅을 발전시킨 사람은 1950년대 말 카운트 멧추키가 미국의 알앤비음악 같은 그 당시 최신 곡을 틀어 놓고 토스팅이나 보컬을 첨가하는 시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토스팅에는 만담, 절반쯤 노래같은 리듬, 리듬을 타고 들어가는 찬팅, 비명, 외침, 리듬에 맞춘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리듬을 타고 들어가는 미국 흑인들의 보컬 토스팅 운율도 자메이카의 토스팅 및 ‘댄스홀’장르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메이카의 디자이 토스팅은 정글뮤직과 유케이게러지 장르등 여러 형태의 댄스음악에 영향을 주었다[7].

3.3 악기적 요소

자메이카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로써 인구의 90%이상이 흑인노예들의 후손이다. 또한, 주변 미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로써 악기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받은 악기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악기에는 기타, 밴조, 핸드드럼, 마림블라 의 다양한 타악기들이 있었으며 주로 어쿠스틱 악기를 사용하였다.

밴조(Banjo)는 17세기 이후에 카리브 해에서 노예들

에 의해 파생되었다. 서 아프리카에서 바니아라고 부르는 것을 흑인 노예가 미국으로 가져오면서 밴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넥은 비교적 길고 가죽으로 된 앞판을 가지고 있다. 둥근 틀로 씌워져 있고 뒷 판은 없다. 4현부터 9현까지의 밴조가 있으며 구성 음과 음역대별로 테너 밴조, 치터밴조, 밴줄린 등으로 나뉜다. 현재의 밴조는 5개의 금속현을 사용한다. Fig.4는 밴조의 사진이다[8].



Fig. 4. Banjo

마림블라(Marimbula)는 카리브 해 지역에서 연주되는 타악기 중 하나로 아프리카 전통악기인 칼림바에서 유래 되었다. 칼림바는 작은 나무 상자에 쇠로 된 얇은 판을 붙여서 나열하여 만든 악기이다[9]. 양손으로 나무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쇠를 탕기며 소리를 만들어 낸다. 속이 빈 나무 상자 옆에 구멍이 있고 구멍 위로 길고 얇은 철판이 여러개가 붙어있다. 구멍 안에서 철판의 소리가 증폭이 되며 철판들은 서로 다른 음정을 낸다[10]. Fig. 5는 마림블라의 사진이다.



Fig. 5. Marimbula

봉고는 자메이카 인근 나라 쿠바에서 발생한 타악기로 아프리카 문화에서 유래된 전통 핸드드럼 중에 하나이다. 아프리카 흑인노예들로 부터 파생된 봉고는 1920년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자메이카까지 그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초기 봉고는 한 개짜리 북으로 무릎에 끼워서 연주했으나 점차 화려해지는 음악 때문에 마찬가지로 화려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개량 되었다. Fig. 6은 봉고의 사진이다[11].



Fig. 6. Bongo

4. <데스파시토> 분석

루이스폰시(Luis fonsi)의 <데스파시토>는 2017년 1월에 발매되었다. 발매 후에 여러 큰 나라에서 엄청난 인기곡이 되었으며 유튜브 조회 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72억 회를 넘어가고 있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노래로 썬는 <마카레나> 이후 21년 만에 빌보드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푸에르토리코의 출신답게 그 지역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노래라고 볼 수 있다. 메인 드럼 리듬은 댐바톤 장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템보우 리듬을 사용하며 플럭 사운드의 리듬은 레게의 리듬과 같다. 또한, 보컬의 선율 또한 자메이카 특유의 보컬방식은 토스팅을 사용하고 있다.

4.1 리듬적 분석

처음 Verse 파트의 시작은 플럭 사운드로 시작이 된다. 이때 플럭 사운드의 리듬을 Fig.7의 악보로 분석할 수 있는데 1박에서 코드 루트음을 연주하고 2,4박에서 루트음의 옥타브 음과 3도 화음을 같이 연주해 주고 있다. 이때 2박과 4박에서는 스타카토로 연주하여 악센트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리듬은 자메이카의 레게의 리듬과 똑같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Fig. 7. Pluck's rhythm score

그 후에 Chorus 파트의 드럼악보인 Fig.8을 보면 같은 리듬 패턴이 이어진다. 이 리듬은 템보우 리듬을 약간의 변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템보우 리듬과의 차이점은 하이햇과 킥 드럼이 맨 마지막 박자에 같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듬의 사용으로 자메이카 전통음악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8. Drum rhythm score in <Despacito>

4.2 선율적 분석

2절의 Verse부분을 피쳐링 한 것은 루이스 폰시와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대디양키(Daddy yankee)가 담당하고 있다. 대디양키(Daddy yankee)의 보컬 선율을 분석해 보면 Fig. 9와 같다.



Fig. 9. Daddy yankee's melody score

대디양키의 멜로디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스페인어로 랩을 하는 것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유래된 레게 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4마디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처음 4마디는 D(레)음과 B(시)음만을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어 낸다. C(도)음은 그 두 음의 사이에 한 마디에 한 번씩만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 4마디를 살펴보면 E(미)음과 D(레)음만을 사용하다가 마찬가지로 한마디에 한번씩 F(파)음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음을 가지고 선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모노톤의 멜로디로 선율을 만들어내는 자메이카의 토스팅과 같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4.3 악기적 분석

또한 <데스파시토>의 인트로 부분에서는 남미의 전통 악기인 차랑고(Charango)의 연주로 시작이 된다. 또한

드럼의 필인(Fill-in)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드럼 대신에 손 악기인 콩가(Conga)와 봉고(Bongo)가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Chorus파트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타악기인 마라카스(Maracas)의 소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음악 <데스파시토>에서는 다양한 자메이카음악의 특징과 라틴 계열 음악의 특징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는 레게톤과 일렉트로 하우스의 결합인 뭌바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12].

5. <피땀눈물> 분석

BTS의 <피땀눈물>은 2016년에 발매한 BTS의 정규앨범《Wings》의 타이틀곡이다. BTS는 이 노래를 통하여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 할 수 있었으며 템보우 리듬이 돋보이는 뭌바톤 장르의 노래이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는 6.9억 회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내 뮤직차트 1위와 한국가수로서 꿈의 전당이라 불리는 빌보드 차트에서 26위에 랭크되기도 하였다[13].

5.1 리듬적 분석

<피땀눈물>은 여타 히트곡과 비슷하게 Hook파트부터 시작되어 노래가 전개가 된다. Hook1파트의 드럼 리듬을 분석하여 보면 Fig.10과 같다.



Fig. 10. Drum rhythm score of Hook1 part

킥 드럼의 경우 1박자마다 계속 나오고 있으며 첫 박자의 4번째 16분 음표와 두 번째 박자의 2번째 16분 음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스네어 드럼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킥 드럼과 스네어 드럼의 패턴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는 댄스홀에서 파생된 템보우 리듬의 형태와 일치한다. Hook2의 드럼 리듬을 분석해보면 Fig. 11과 같다.



Fig. 11. Drum rhythm score of Hook2 part

Hook1과 Hook2의 킥 드럼과 스네어 드럼의 위치가 일치한다. 다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바로 하이햇의 연주패턴인데 댄스홀의 형태로 하이햇을 16비트로 쪼개서 연주를 하고 있으나 2마디 째 마지막 박자에서 32분음표로 더 잘게 쪼개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힙합의 하위 장르인 트랩(Trap)의 형태와 같다. 이렇게 뭌바톤의 형태와 트랩의 형태를 합쳐 놓은 장르를 뭌바트랩이라 부른다. Hook 파트에서는 전형적인 자메이카 리듬의 패턴인 3.3.2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A파트에서는 스냅의 비트에 플럭 사운드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 플럭 사운드의 리듬과 멜로디를 분석해본다면 Fig. 12와 같다.



Fig. 12. Score of A part's pluck sound

이 플럭 사운드의 리듬을 뭌바톤의 템보우 리듬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마디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박자씩 각각 대조해 보면 맨 처음 Eb(미b)음은 1박의 킥 드럼과 일치하고 두 번째 음인 F(파)는 4박의 스네어 드럼과 일치한다. 세 번째 음인 G(솔)음은 다시 1박의 킥 드럼과 일치하고 네 번째 음인 C(도)의 음은 2N박의 스네어 드럼과 일치하며 마지막 음인 Bb(시b)은 4박의 스네어 드럼과 일치한다. 각각의 플럭 사운드의 음과 템보우 리듬에서의 킥 드럼과, 스네어 드럼의 위치가 같은 형태를 가졌으므로 템보우 리듬을 표현하여 자메이카 음악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16].

5.2 선율적 분석

<피땀눈물>에서 가장 자메이카 음악의 성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Hook부분의 보컬 파트이다. Hook 파트 가사의 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 일부:
 내 피 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가-
 내 피 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가 -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가사를 보면 “원해 많이 많이 많이”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많이”라는 단어는 Hook파트에서 총 18번이 사용되었으며 “원해”라는 단어 또한 총 4번이 사용되었다. 이렇듯이 가사를 최소한으로 하여 반복하는 것은 마치 리듬에 맞추어 읊조리는 자메이카의 보컬 형태인 토스팅과 같다고 볼 수 있다.



Fig. 13. Score of Hook part's melody

Fig. 13은 Hook 파트의 선율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D(레)음과 C(도)음, 그리고 Eb(미b)음 만을 사용해서 선율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 마디 당 처음에 해당하는 “많이”라는 단어는 보컬의 끝부분을 마치 노래가 아닌 외침과도 같은 형태로 노래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부 자메이카 보컬 형태인 토스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컬의 표현방법을 통해 BTS의 <피땀눈물>은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5.3 악기적 분석

<피땀눈물>의 Hook 파트의 필인(Fill-in)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드럼머신을 사용하고 있다. 초창기 드럼머신에 대해 알아보면 그 시초는 로랜드(Roland)사의 TR-808이라 할 수 있는데 TR-808은 전자음악의 역사를 바꾸었던 전자 드럼의 시초이다. 1980년에 발매한 이 제품은 처음 등장시에는 드럼의 원래 소리와 너무 이질감이 있는 소리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 받았으나 생산이 중단되면서부터 일부 아티스트에게서 사랑받는 소리가 되었고 결국에는 수많은 히트 곡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리가 되었다. 또한 2021년에 와서 수많은 악기들이 출시되고 있는 중에 TR-808같은 드럼머신의 사용은 고전의

사운드를 표현하기에 충분하다[14].

초창기 템보우 리듬을 사용한 음악은 전부 드럼머신으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드럼머신을 전통 악기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BTS의 <피땀눈물>에서 사용되어 레게톤, 몸바톤의 색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또한 자메이카 음악의 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15].

6. 결론

본 논문은 가장 유행하는 장르인 몸바톤에 대해 알아보고 몸바톤이 파생되어온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몸바톤의 곡들을 분석하여 그 속에서 자메이카의 음악적 색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리듬적인 분석으로 보았을 때 댄스홀에서 파생된 템보우 리듬의 사용이 많았으며 이 템보우 리듬은 현재 몸바톤 장르 뿐 아니라 트로피칼 하우스장르나 K-pop음악에서도 주로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는 리듬적인 패턴을 고전적인 음악에서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18]. 또한, 단선율의 멜로디 사용과 주술을 외우는 것같이 단순한 단어의 반복사용 등을 찾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는 자메이카의 특유의 선율 표현 방법인 토스팅을 사용하여 자메이카 음악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악기의 사용에서도 핸드드럼이나 드럼머신, 그리고 기타와 베조, 그 외 다양한 타악기의 소리를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자메이카의 음악적 색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19].

현재의 대중음악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발전은 제한적이며 결국 과거의 음악, 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결합되어 나오는 형식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BTS는 전세계 팝음악시장에서 한국어의 사용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 한국적인 추임새를 음악에 차용하고는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또한 현대의 음악과 결합되어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에서는 이 날치의 <범 내려온다>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음악은 한국전통의 판소리와 현대악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음악이다. 이 유튜브 조회 수는 현재 2021년 기준으로 4584만회를 넘어가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댓글이 더 많이 달릴 만큼 해외에서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또한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음악이 결합하여 나온 결

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20].

뭌바톤은 계속 반복되는 빅룸 스타일의 EDM 음악 형태에 지친 리스너들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장르를 찾아낸 아티스트의 결과물이다. 언젠가는 자메이카나 여타 다른 나라의 음악들이 아니라 한국전통의 음악이나 다른 한국의 음악들도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음악의 상업성으로 인해 매년 같은 형태의 음악들이 나오고 있다. 뭌바톤의 탄생 배경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신선하고 발전적인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REFERENCES

[1] Soulless. (2020). *Let's learn about EDM*. soullessdesign.tistory.com. <https://soullessdesign.tistory.com/entry>

[2] D. H. Kim. (2018). *A Study on the Flow of EDM-style K-pop Music*,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of Culture and arts. Yongin

[3] Chonchon. (2017). *Let's learn about the EDM genre - Electrohouse*.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_contents

[4] Hifi. (2015). *Major Lazer & DJ Snake - Lean On (feat. MØ)*.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inihifi>

[5] C. J Kyou. (2009). *Research and comparative analysis of Bob Marley's reggae music*.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city. Seoul

[6] N. W. Sung, (2018). *analysis on Jamaican music and the effects of Jamaican music on Korean popular music*.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art. Seoul

[7] Y. S. Lee & J. Y. Jeong. (2019, May). A Study on Dem Bow Rhythm Shape in K-pop-Focused on 3rd Generation Girl Group.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pp. 27-28)

[8] Ultra-nomad. (2015). *[Introduction]Deejay and toasting :Jamaica's Unique Vocal Form Influencing Hip-Hop*. <https://m.cafe.daum.net/khmer-nomad/8ibQ/71>

[9]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Benjo*.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4785&cid=60476&categoryId=60476>

[10] B. K. Lee. (2020). *Lesson Plan for Kalimba and Djembe Ensemble for After Middle School Program*.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city. Gwangju

[11]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Marimbula*.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9310&>

[cid=40942&categoryId=33037](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9310&cid=40942&categoryId=33037)

[12] I. S. Lee (2013). *Research and analysis rhythm on Afro-cuban music : focusing on the percussion*.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13] B. G. Park. (2019). *A Study on the Use of World Music in EDM*,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Seoul

[14] Namuwiki. *WINGS*. <https://namu.wiki/w/WINGS?rev=450&noredirect=1>

[15] Y. S. Jeong. (2014). *Exploring the evolution of sound through the influence of electronic music in popular music*.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of Culture and arts. Yongin

[16] S.E.Jeong & T.S.Cho. (2020). A Study on the Electric Guitar -focusing on Fender Stratocast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1(5), 426-432. DOI : 10.5762/KAIS.2020.21.5.426

[17] J.S.Kim & T.S.Cho. (2020). A Study on the Album "MonoCro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1(2), 205-211. DOI : 10.5762/KAIS.2020.21.2.205

[18] H.J.Kim. (2020). The meaning of art revealed by The origin of the work of art and An outline of a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8), 123-129. DOI : 10.5762/KAIS.2020.21.8.123

[19] Y.S.Choi & T.S.Cho. (2019). A Study on Vocal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 218-222. DOI : 10.5762/KAIS.2019.20.2.218

[20] im & T.S.Cho. (2018). A Study of Shin Hae-Chul's Music -With focus on N.EX.T albu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212-277. DOI : 10.5762/KAIS.2018.19.12.212

박 범 근(Beom-Geun, Park)

【경력】



- 2019년 2월 :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국제대학교 겸임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외래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서울신학대학교

-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 2017년 1월 ~ 현재 : 라엘실용음악학원 출강
- 관심분야 : 실용음악, 작, 편곡, 보컬
- E-Mail : parkbum64@naver.com

조 태 선(Tae-Seon, Cho)

[초록]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실용음악교육협의회 회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 관심분야 : 보컬, 싱어송라이터, 작, 편곡
- E-Mail : entheos@chungwoon.ac.kr